

이외수의 사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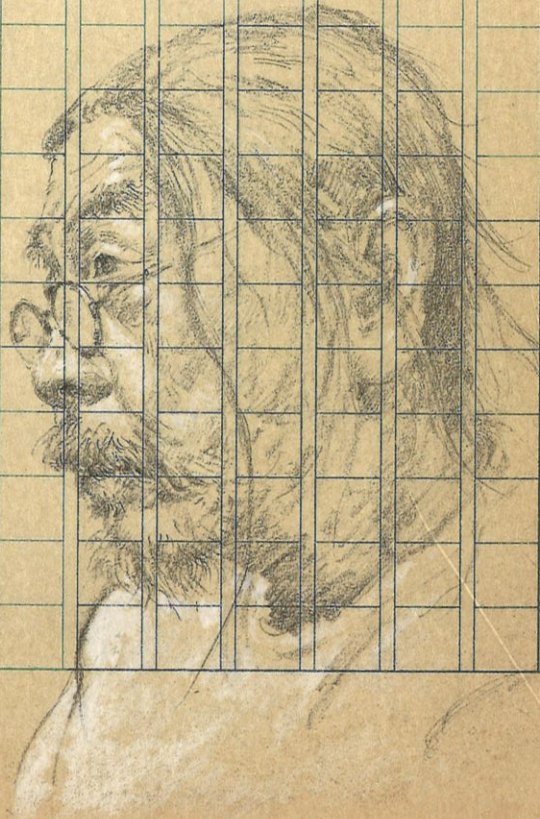
사랑의 법칙

5

10

15

20



이외수가 쓰고
정태련이 그린다

李外秀

재념

그대 오를 사랑을 굶지는 않으셨나요.

그대 오늘 사랑을 굶지는 않으셨나요.

| 차례 |



1

한 땅에서 한 인연을 기다리며

- 그대가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13
- 사랑은 점괘를 초월한다 16
- 불행 겨루기 19
- 호박이 수박보다 못할 게 뭐냐 21
- 먼 길을 빨리 가는 가장 좋은 방법 23
- 비록 입에 풀칠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26
- 커플 28
- 외롭다면 31
- 멋진 새는 나무를 가려서 앉는다 33
- 차나 한잔 하실까요 36

2

가는 사랑이 있는데
왜 오는 사랑이 없으랴

- 불현듯 젖은 그리움으로 41
-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는다 44
- 내 가슴에 배반의 대못을 박고 46
- 진정한 사랑에는 이별이 따르지
않는다 48
- 손톱은 슬플 때마다 돌고 51
- 그대가 이 세상에 오신 뜻 55
- 비 오는 날은 떠나지 말기 57
- 술로 만세 59
- 꿈속에서 당신의 애인이 62
- 모태사랑결핍증 65
- 모든 계절의 사랑 68

3

똥 썩 놨은 도망가고
방귀 똥 놨은 붙잡히는 세상

- 밥 먹다 돌 하나 씹었다고 73
- 앞뒤가 안 맞잖아요 76
- 세상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79
- 꿀볼건은 마찬가지로 82
- 사랑은 누가 해도 아픈 것이다 84
- 어이상실, 대략난감 87
- 슬픔이여 짝둑 89
-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만 93
- 불면의 밤을 넘어 96

그중에 제일은 그대이니라

- 모든 사랑은 무죄 99
 우리는 속았는지도 모른다 101
 기왕 하는 빈말이라면 106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것 109
 당신이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112
 문학이 희망이다 115
 남편, 너 이제 죽었다 117
 가마솔이 검다고 밥까지 검겠느냐 120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면 123
 초딩 유머 126
 그대는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128

대한민국에서는 방부제도 썩는다

- 어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133
 금메달 드립니다 136
 밥은 먹고 다니냐 139
 의혹이 곧 사실은 아니다 142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144
 가을 전어맛 때문에 148
 그대 마음 비뚤어져 있을 때는 150
 차카게 살자 154
 잣나무는 가을이 되어도 단풍이 들지
 않는다 156
 억지 쓰지 맙시다 158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161

도덕에 어찌 옛것과 새것이 있으랴

- 물 한 그릇의 비밀 165
 막장 드라마, 채널을 못 바꾸는
 이유 168
 온실형과 잡초형 171
 사랑에 조건이 붙는 순간 174
 한 가지를 잘하기도 벅찬 세상 176
 춘향 대 심청 180
 기 살리는 방법 183
 직장이라는 이름의 명에 185
 자부심 187
 고딩 유머 191
 전문의와 돌팔이 194
 웃긴다 197

그대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

- 실없는 نوم 201
 하수와 고수 204
 예술의 고통 207
 그대 식으로 내버려두겠소 210
 같은 선녀, 다른 나무꾼 213
 아주 특이한 가치관 215
 냉수에 이 부러진다 217
 어떻게 할까요 221
 우리 다시 한 번 223
 마음속의 그분에게 227

버티기의 기술

- 잡초는 없다 231
 지독하게 외로운 날 234
 어쨌든 버티기 237
 마누라 팬 날 장모님 온다 241
 개똥을 약으로 쓰면 똥인가요 약인가요 243
 욱먹어도 싸다 245
 쫄팽이들만 남았네 248
 인생은 고(苦), 그래도 고(go) 251
 어떤 꼴볼견 253
 달빛으로 목욕을 255
 배려를 모르면 사랑도 모른다 257
 무섭고도 슬픈 현실 260

그대 현재는 미약하였으나
그대 미래는 창대하리라

- 저문 날 강 건너 마을에 265
 하늘에 닿기 위하여 268
 눈부시게 사랑하리라 271
 사랑의 고백 274
 외로움은 나이 들수록 독야청청 276
 그럴 일은 없겠지만 279
 생각을 뒤집어보세요 282
 나도 우겨볼까 284
 피르소의 총소리 288
 사랑합니다 고객님 290
 소신대로 살고파 292
 쓰는 자의 고통이 읽는 자의 행복이 될
 때까지 294
- 이 책에 담긴 모든 그림들 298

한 땅에서 한 인연을 기다리며



그대 가슴에 꽃이 피지 않았다면
 온 세상에 꽃이 핀다고 해도 아직 진정한 봄은 아닙니다.

그대가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사랑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운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지만, 숙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운명은 인간의 소관이지만 숙명은 하늘의 소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그대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어린이 사생대회나 어린이 백일장에 가보면 엄마들이 참견을 하거나 손질을 해서 어린이들의 순수성이나 천재성을 다 망쳐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엄마 놀이터나 엄마 격리실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어머니의 빈번한 퇴짜로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만득이. 이번에는
외모도 성격도 어머니를 빼닮은 여자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흡
족한 표정으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녀와 결혼
을 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장남이냐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아프지도 않게 하고 슬프지도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부터 비롯되는 생로병사,
희로애락 모두를 아무 불평 없이 굳게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대가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그대를 버리고 멀리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 그윽한 눈길로 그대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실 건가요.



2012 E.M.L.C.

①애를 쓴다

사랑은 점괘를 초월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길게 또는 짧게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동반자들은 제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동반자는 자기라는 짐뿐만 아니라 다른 짐까지도 제게 안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고향 친구

조선백자를 많이 소장하고 계시던 시조시인 김상옥 선생님께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쭙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하면 보인다"였습니다.

젊은 커플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궁합이 안 좋다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점괘를 초월합니다.

진실로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싶다면 버림받은 것들에게 간직되어 있는 아름다움부터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들 속에는 언제나 큰 이치가 들어 있나니, 천하를 사랑하겠다는 응지를 품은 자가 어찌 길옆에 피어 있는 풀꽃 한 송이를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리-

꽃이야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최소한 지렁이나 갈레 정도는 되어야 사랑도 슬프지만 제맛이 나는 법.

17년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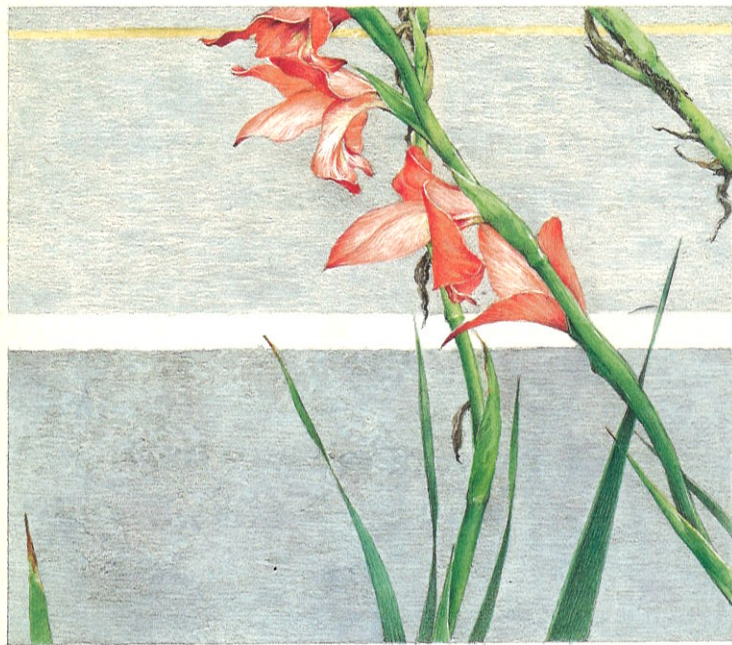
아플 때 떠오르는 사람이 진정 그리운 사람이라면, 저는 진정 그리운 사람들이 너무 많군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플 때마다 제 머리맡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물컵 하나와 약봉지만 달랑 남아 있는 것일까요.

마크라반트

가랑

꽃





2017 O.M.H.C.

불행 ²⁵⁸겨루기

사랑을 못 주어본 사람이 더 불행할까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이 더 불행할까요.

^{동행} 먼 길을 갈 때 동행이 없으면 보람도 건문도 반감됩니다. 인생은 먼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목적지가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박터지게 싸우기도 합니다. 최성수가 부릅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배 속이 텅 빈 거지보다는 머리 속이 텅 빈 거지가 훨씬 더 불쌍한 거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문자 한 줄로도 밤이 낮보다 환해질 수가 있습니다.

첩첩산중에서 원고지나 파먹고 사는 저도 마누라가 슬쩍 봉투 찢러주면서 여보야 용돈,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돈 쓸 일 별로 없는 저도 이런데 집 나가면 돈 쓸 일투성이인 도시의 남자들은 어떨까요. 사모님, 오늘은 배춧잎 한 장 보너스로 곁들인 뽀뽀 한번 강추.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밥도 초월합니다.



호박이 수박보다 못할 게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 속담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서도 오리발이 나오고 팥 심은 데서도 오리발이 나옵니다. 콩도 팥도 심은 건 당신인데 엉뚱한 놈이 따먹습니다. 그리고 오리발을 내밅니다. 참 쥐랄 같지 않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속담이지요. 암탉은 알을 낳았을 때 읊니다. 그런데 왜 집안이 망합니까. 속담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지요. 속담도 가끔 지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

돈
친
질
을

만 멀리 있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돈 없으면 모두가 꺾입니다.

호박에 ^{상류?}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반대로 수박에 있는 줄 지운다고 수박이 호박 되는 거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서로의 특성이 다를 뿐, 호박이 수박보다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어떤 장인지 맛 들었을 때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맞아.

먼 길을 빨리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이런의}
^{이제 뭐?}
양심 챙겨서 대답해 주세요. 10억이 들어 있는 상자와 평소 호감을 느끼던 이성이 ^{정상}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밖에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느 쪽을 건지시겠습니까. ^{가. 건너지}

사람과 돈 중에 어느 쪽이 더 소중하냐는 설문지를 돌려보면 대다수가 돈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막상 큰돈이 눈앞에 있을 때는 왜 대답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이런의}

똥이 더럽다고 모두가 피하면 온 세상은 똥밭이 되고 맙니다. ^{-고 말다}

^{(12) 나랑}
^{(12) 과반}

열어야 할 것들은 막으려고 애쓰고 막아야 할 것들은 열려고 애쓰